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

# 모닝구의 도시민속학

モーニングの都市民俗学

저자 | 시마무라 다카노리(島村恭則)

번역 | 이민재(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 · 민속학전공)

▶ 이 논문 번역은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 아카루트

## 모닝구의 도시민속학<sup>1)</sup> (モーニングの都市民俗学)

시마무라 다카노리(島村恭則)

\*번역: 이민재(한국학중앙연구원 인류학·민속학전공)

### I. 문제의 소재

민속학의 한 영역인 도시민속학은 도시에 존재하는 생활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를 축적해 왔는데 아파트 단지라는 거주공간을 비롯해<sup>2)</sup>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을 다뤘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목욕탕과 이발소의 기능과 변화를 다룬 연구(岩本, 一九八三), 목욕탕이 가진 유사 타계성(他界性)을 지적했던 연구(岩本, 一九八五), 뒷골목과 공원이 지닌 상징론적 의미를 분석하여 “다른 세계와의 경계”로서 성격을 추출했던 연구(高桑一九八九), 통근 전철이라는 공간을 기호론적으로 해석하여 “사적 인간[私人]에서 공적 인간[公人]으로의 심리적 변화를 시도하는 결계(結界) 장치로서 통근 전철의 의미를 지적했던 연구(岩本, 一九八六)가 있다. 그리고 편의점이 생활화된 주민의 의식 양상을 민속지적(民

1) 이 번역논문은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2003년 3월 발행한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103集에 실린 「モーニングの都市民俗学」를 번역한 논문을 저본으로 하여 동명의 논문이 일부 수정되어 수록된 저자의 『民俗学を生きる－ヴァナキュラー 研究への道－』(関西学院大学社会学部研究叢書, 2020)와 『みんなの民俗学』(平凡社親書, 2020)을 참조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1장은 2003년 논문을 중심으로 2장 역시 2003년 논문으로 번역했지만 2020년 간행된 두 책을 참조하여 사례 부분을 수정했고 특히 모닝구의 역사와 관련해 새롭게 발굴된 사례를 추가했으며 3장은 『みんなの民俗学』을 중심으로 번역했다. 이 같은 번역은 저자의 조언을 듣고 번역자가 결정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저자에게 한 차례 검수받았음을 미리 밝힌다. 그리고 원문의 저자가 붙인 각주 외에 역자가 붙인 각주는 역주라는 명칭으로 각주 앞에 붙였음을 미리 밝힌다.

2) 아파트 단지에 관한 도시민속학적 연구로서는 倉石(1990)이 있다.

俗志的)으로 분석했던 연구(森栗, 一九九四; 高岡·村上, 一九九七) 시장, 나가야[長屋]<sup>3)</sup>, 지장(地藏)<sup>4)</sup>을 둘러싼 도시 커뮤니티의 양상 변화를 검토했던 연구(森栗, 一九九八) 등을 구체적 예로 들 수 있다.

아직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은 공간 중 하나가 깃사텐[喫茶店]이다.<sup>5)</sup> 깃사텐은—알다시피 “커피와 홍차를 중심으로 각종 음료와 가벼운 식사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神崎, 一九九九)이지만 민속학의 관점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 이상의 의미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를 검토하는 것은 도시 일상생활의 존재 양식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글은 깃사텐, 특히 그곳에서 이뤄지는 “모닝구”[아침 식사를 집이 아닌 깃사텐의 조식 세트(조식 서비스)로 해결하는 습관<sup>6)</sup>]에 주목해 논의하겠다.

## II. 사례

### 1. 일본 각지의 모닝구

- 3) \*역주: 가로로 긴 건물로 외벽을 공유하는 한동의 건물에 각각의 입구를 가진 별도의 집이 있는 형태의 건물.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전국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서 무가(武家) 가옥 내 가신(家臣)들이 살거나 성 아래의 서민지역, 소위 시타마치[下町]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근현대에 들어서도 나가야는 존재했고 주로 도시 노동자와 같은 서민들이 주로 살았던 집의 형태이다.
- 4) \*역주: 여기서 지장은 지장보살을 가리키며 일본 민속학에서는 흔히 지장신앙(地藏信仰)으로 불린다. 지장신앙은 중국에서 발전하여 일본으로 전래된 것으로 보는데 헤이안 말기에서 가마쿠라기에 걸쳐서 일본인의 신앙생활에 침투했다. 일본에서는 현세와 내세의 경계에 있는 존재인 지장이 지옥의 귀신으로부터 아이를 지킨다고 여겨서 지장 석상에 아이에게 해주는 빨간 턱받이를 해준다. 이외에도 마을의 교차로에도 지장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지장이 길을 지나다니는 행인들의 신으로도 여겨지기 때문이다.[참조: 福田アジオ·宮田登 編, 『日本民俗学概論』, 吉川弘文館, 二〇一八, 二〇九.]
- 5) \*역주: 깃사텐[喫茶店]의 표기를 한국어로 직역하면 킥다점이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 내에서 킥다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일본의 깃사텐에 대응하는 번역어를 한일사전에 찾으면 찻집, 카페로 정의해 놓았다. 그러나 번역자는 깃사텐이 한국의 찻집, 카페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이유는 깃사텐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음료의 경우 한국의 찻집 혹은 카페와 깃사텐이 비슷하지만 식사류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의 경우 주로 빵류 혹은 최근에 브런치 등을 중심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깃사텐은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커피, 홍차를 비롯한 각종 음료도 제공하지만 샌드위치와 같은 빵류, 나폴리탄으로 대표되는 파스타, 카레라이스, 돈카츠 등 다양한 식사류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본 내에는 음료를 위주로 제공하는 카페도 있다. 그래서 이 번역논문에서는 깃사텐이라는 장소만의 독특함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어 원음 그대로 깃사텐이라 표기하고자 한다.
- 6) 모닝구 서비스와 모닝구 세트를 구별하는 경우도 있다. 모닝구 서비스는 통산 커피 한잔의 가격으로 빵과 다른 요리가 무료로 같이 나오는 것에 비해 모닝구 세트는 커피 한잔의 가격에 다른 요리의 가격이 덧붙어서 세트 요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구별하는 가계가 있다. 더욱이 이 경우 모닝구 세트도 요리의 가격을 싸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싼 값에 모닝구 세트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모닝구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 가계도 있다. 이러한 용어법은 가계에 따라 다르다.

필자가 현재까지 필드워크와 문헌 및 인터넷 조사를 통해 확인한 모닝구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는 일본 열도의 동쪽부터 서쪽 방향 순으로 제시하겠다.

### 아이치현[愛知県] 도요하시시[豊橋市]

시내 깃사텐은 어디든 오전 7시, 늦어도 7시 30분에는 개점하여 개점과 동시에 손님을 받는다. 개점 전부터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인도 많다. 8시를 넘기면 손님이 한층 더 늘어난다. 모닝구타임은 개점부터 11시까지로 커피 1잔 가격(350엔 혹은 370엔)을 내기만 하면 토스트, 샐러드, 삶은 달걀이 서비스로 나온다. 이 시간에 손님이 커피를 주문하면 반드시 점원은 “모닝구로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한다. 현지인 단골은 주문을 따로 하지 않고 자리에 앉기만 해도 모닝구 서비스가 나온다.

도요하시를 포함한 주쿄권[中京圏]<sup>7)</sup>의 깃사텐에서는 모닝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 손님들은 가게의 서비스 내용을 잘 살펴보고 가게를 선택한다. 그만큼 이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해 가게에 따라서는 토스트 대신 샌드위치를 주기도 하고 요구르트, 토스트, 샐러드, 삶은 달걀, 붉은 미소된장국 등을 더하여 주는 등 여러 가지 고안이 이뤄지고 있다.

“디럭스 모닝구”(핫도그, 베이컨, 스크램블에그, 샐러드, 요구르트로 이뤄져서 500엔)와 “바이킹 모닝구”(커피, 홍차, 각종 주스, 샌드위치, 각종 샐러드, 반숙 달걀프라이, 스크램블 에그, 감자튀김, 비엔나소세지, 베이컨, 죽, 필라프, 파스타 등으로 이뤄져서 480엔)가 나오는 가게도 있다. 여기에 모닝구 시간대에 커피만 주문할 경우, 평소 커피 가격보다 30엔 정도 싼 가격이어서 어떤 의미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닝구를 먹으러 오는 손님은 남녀노소 다양하다. 혼자 온 손님은 가게에서 구비 한 스포츠 신문을 손에 들고 토스트를 먹으며 주인, 점원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한다. 이인(二人) 동반으로 오는 경우는 부부나 동네 주부들이다. 혹 3~5명이 와서 테이블에 앉는데 회사 동료, 동네 주부, 주변 상점주인 같은 사람들이다. 평일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정해진 자리에 앉을 때가 많은데 때때로 단골이 아닌 손님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나중에 온 단골은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연쇄적으로 다른 단골의 “지정석”도 형클어진다. 단골손님은 계산대 옆에 보관해둔 커피 티켓으로 값을 치르는데 점원은 손님 테이블에 모닝구 서비스를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티켓 1장을 뜯는다. 따라서 손님은 계산대로 가지 않고 바로 가게를 나갈 수 있다.

단골손님들에 따르면

매일 아침으로 깃사텐 모닝구를 먹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 집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바쁜데 일일이 아침을 준비하기가 귀찮고 동네 사람, 가게 사람과 하는 이야기가 즐겁기 때문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가족이 함께 와서 모닝구를 먹는 사람들이 많다. 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7) \*역주: 아이치현 나고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권을 가리킨다.

말했다.

평일에는 어머니가 집에서 아침을 하지만 휴일만큼은 쉬고자 가족과 깃사텐에 간다. 휴일에는 아버지도 집에 있으니 차로 교외 깃사텐에 쉽게 갈 수 있다는 점 역시 이유이다.

가족과 함께 하는 휴일의 모닝구는 점심을 겸한 늦은 아침 식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모닝구를 먹은 후 가족이 교외형 쇼핑센터에 들러 쇼핑하는 것이 이 지역의 휴일을 나는 패턴 중 하나이다.

이상은 필자의 현지조사에 기반한 기술이었다. 인터넷에도 도요하시 지역의 모닝구를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들으면 놀라고 보면 웃겨! 도요하시 모닝구 사정>이라는 사이트는 도치기현[栃木県] 우쓰노미야시[宇都宮市]가 “교자의 동네”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면, 도요하시시는 “모닝구 서비스의 동네”라 선언해도 틀렸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아이치현 그중에서도 도요하시는 깃사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상점가는 물론, 주택가 뒷길. 양배추밭의 한구석, 이런 곳에서 괜찮은가 걱정되는 입지의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평일 오전 9시 반의 깃사텐을 살짝 엿봅시다. 그곳에는 외근을 계속하는 영업맨, 부인에게 가게를 맡겨둔 채 나온 점주, 아침 집안일을 마친 주부들 모임, 게이트볼을 마친 후 돌아가는 노인들로 꽉 찼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더 대단합니다. 온 가족이 출동합니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삼대(三代) 7명이 와도 결코 놀랍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츄리닝에 샌들, 미취학 아이들은 파자마를 입은 채 오는 것이 깃사텐 방문 시 정장(正裝)이라 여기는 듯합니다. 왜 모두 왔을까요? 바로 모닝구 서비스를 즐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 지역 모닝구는 토스트·삶은 계란·샐러드 가끔은 요구르트마저 커피값만 내면 먹습니다. 도요하시 현지인은 모닝구 서비스나 모닝구 세트라고 부르지 않고 모닝구라 줄여서 불러요.”(www.toyo-ken.com/morningjijo.htm).

그런데 도요하시시가 일본의 모닝구 발상지라는 이야기가 있다. 2000년 4월 6일자 『주니치신문(中日新聞)』에 게재된 <정말 그렇군! 흠 저 녀석 박사(なるほどフムフム分かったゾあいつ博士)>라는 기사는 도요하시 시민들 사이에 도는 “모닝구 서비스는 도요하시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에 퍼졌죠. 이건 상식이예요”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아이치현 깍다환경위생동업조합[愛知県喫茶環境衛生同業組合] 도요하시 지부장의 “그건 진짜예요. 적어도 업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도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도요하시역[豊橋駅] 근처 마츠하바초[松葉町]에서 1963년 깃사텐 코우마[仔馬]가 개점했다. 이 가게가 1, 2년 뒤부터 모닝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점차 도요하시시, 아이치현 등 전국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모닝구 서비스를 개시했던 당시 점주의 부인의 “역 앞 가게여서 출근 전에 들르는 손님이 많았는데 무엇인가 요깃거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스트를 내놓은 것이 계기였습니다”라는 인터뷰도 실려있다. 또 다른 발상 이유로 앞서 나온 지부장의 “농업이 활발하여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하기 쉽다는 것도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소개했다.

필자는 도요하시 발상설을 도요하시시를 현지조사하던 도중 곧잘 들었다. 하지만 특정 가게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못 들었다. 그리고 코우마 개점 이전에 가게를 시작했다는 마쓰바초의 어떤 깃사텐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우마가 기원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 있지만 우리 가게는 코우마 개점 이전부터 모닝구 서비스를 했지. 이미 다른 동네에서도 하니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가 기원이나고 물어도 잘 모른다. 코우마가 기원이라 하는 것은 그 가게의 규모가 크고 시내에서도 유명해서이지 않을까?

모닝구 서비스의 발상은 이후 서술되듯이 다른 도시라는 설도 있어서 특정 기원설을 일원적(一元的)으로 정하기 어렵다.



[사진 2] 도요하시시 내의 깃사텐1  
(출처: 2001년 저자 촬영)



[사진 3] 도요하시시 내의 깃사텐2  
(출처: 2001년 저자 촬영)



[사진 3] 도요하시시의 바이킹 모닝구  
(출처: 2001년 저자 촬영)



[사진 5] 도요하시시 모닝구 세트의 한 예  
(출처: 2001년 저자 촬영)

## 아이치현 나고야시[名古屋市]

모닝구는 나고야에도 있다. 나고야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다룬 『위대한 불가사의 시티 나고야에 대한 책(摩訶不思議シティ名古屋の本)』에는 <여기까지 진행됐다!? 깃사텐을 좋아하는 나고야사람>이라는 글이 실려있다.

처음 나고야에 온 사람이 가장 놀라는 것은 깃사텐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역 주변과 변화가는 물론, 한가롭고 조용한 주택가와 교외까지 깃사텐이 산재해 있다. (중략) 가게 안의 모습은 도쿄 등의 깃사텐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평일 오후면 근무 중 잠깐 즐기고 있는 영업맨과 협상하는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침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일견 맵시 있고 멋지다 생각되는 가게도 안에 들어가면 한순간 경로당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노인으로 붐빈다. 특별히 나고야의 노인은 깃사텐을 아주 좋아해 깃사텐은 게이트볼로 땀을 흘린 노인과 병원에서 귀가하는 노인으로 몹시 혼잡스럽다. 휴일 아침이면 또 느낌이 달라서 이번에는 가족이 주류로 가족 단위로 아침을 먹는 광경이 일반적이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파자마 차림 또는 운동복 차림(대개 오래된 츄리닝의 상하)으로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교외로 가면 현저해져 도쿄나 다른 지역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광경이 펼쳐진다. (中澤, 二〇〇〇、四三~四四)

(나고야의 깃사텐은 \* 저자) 대부분 주차장이 있어서 드라이브 겸 차로 올 수 있다. 나고야 사람은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으면 조금 멀더라도 개의치 않고 가고 싶은 가게에 간다. 무엇보다 차라는 편리한 발이 있어서 조금 먼 거리도 아무렇지 않다. (中澤, 二〇〇〇、一五二)

또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오와리 깃사텐 사정[尾張喫茶店事情]> 있다. 이곳에는 “오와리[尾張] 지방<sup>8)</sup> 사람은 깃사텐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지방에 살기 전에는 깃사텐은 젊은 사람만 가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깃사텐은 이 지방에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빈번히 가는 곳입니다. 데이트 이후 젊은 사람들이 잠깐 들르는 장소가 아니라 근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깃사텐에 가는 것이 일상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지역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으로서 존재합니다. (www.i-chunbun.ne.jp/emi/futagono/kissaten.html)”라고 기술했다.

##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一宮市)

이치노미야시도 모닝구가 성업 중인 동네이다. 이 시의 경우 모닝구를 시의 명물로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이치노미야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이치노미야모닝구협의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이치노미야모닝구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모닝구맵”을 발행하고 스탬프챌린지를 실시 하였으며 “이치노미야모닝구박람회” 등을 개최했다.

이 협의회가 만든 공식사이트 “이치노미야모닝구(一宮モニン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8) \*역주: 오와리 지방이란 현재 아이치현 서부 지역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주요 가도 중 하나인 도카이도[東海道] 주변 15개 국 중 하나이다. 에도시대에는 도쿠가와코산케[徳川御三家] 중 하나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식들을 초대 번주로 하는 오와리한이 지배했던 지역이다.

있다.

이치노미야의 거리에서 쓸데없이 많은 것이 깃사텐. 특히 아침 시간대는 음료만(가게에 따라서는 약간의 추가 요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으로 토스트나 삶은 달걀, 샐러드 등이 나오는 '모닝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기원은 뽑기 경기에 열광한 쇼와 30년대 전반.섬유업을 하는 이른바 '하타야'씨는 밤낮으로 찻집을 자주 찾았어요.그래서 사람의 좋은 마스터가 아침 서비스로 커피에 삶은 달걀과 땅콩을 같이 내온 것이 시작입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요일 아침에는 온 가족이 깃사텐에 모닝구를 먹으러 가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총무성 가게 조사에 따르면, 전국 도도부현 소재지를 대상으로 한 1세대 당 연간 찾값(2006년~20년)은 1위가 기후시로 1만4481엔, 2위가 나고야시 1만3547엔입니다. 이치노미야 시의 통계는 없지만, 그 경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헤이세이 16년 통계에서 이치노미야시의 찻집 수는 752개로 이를 시 인구 38 만명으로 나누면, 1 만 명 당 약 20개로 톱 클래스입니다.

우리 「이치노미야 모닝 협의회」는 모닝구를 단순한 음식점 서비스가 아닌 오랜 세월을 걸쳐 이치노미야에서 키워온 온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에는 이치노미야모닝구협회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이치노미야모닝구의 뿌리(一宮モニングのルーツ)”에 게재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시내의 찻집을 돌아다니며 마스터와 마마에게 이야기를 물었다. 그러나 모두들 고개를 가웃거리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 혼마치(本町)에서 전전(戰前)부터 영업하고 있는 '마루사(マルサ)'의마스터로부터 “쇼와30년대 전반(1950년 후반 \*역자)이라 생각된다. 어느 가게에서 모닝구를 시작했는데 우리도 하지 않겠냐해서 시작했다”(마스터)라는 증언을 얻었다. 또 구(舊)비사이시[尾西市]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상파울로에서 새롭게 유력한 정보를 얻었다. '상파울로'가문을 얻은 것은 1960. “문을 열면서부터 모닝구를 했다”라는 것.

당시는 토스트가 아닌 삶은 계란과 땅콩을 함께 내었다고 한다. 가게 문을 열기 4년 전, 마스터는 당시 혼마치에 있던 '산라쿠[三樂]'이란 찻집[喫茶室]에서 일했다. “내가 '산라쿠'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얼마 뒤 주변 가게에서 하는 모닝구를 우리도 하자라고 했다. 그것이 1956년이다.” (마스터)

1956년이라고 하면 모닝구 발상의 가게라고 하는 히로시마시의 타카노바시[タカノ橋]상점가에 있는 '루에 브라질'이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이다. 그 시점에 이치노미야에서도 모닝구가 존재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상은 그 이전부터일까? 이치노미야에서 처음으로 모닝구 서비스를 한 가게 있다면 그 가게가 진짜 모닝구가 시작된 가게이다. 우리 '이치노미야 모닝구 탐험대'는 그후에도 조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누군가 이치노미야에서 최초로 모닝구 서비스를 한 가게를 알고 계신 분은 '이치노미야 모닝구 탐험대'에 제보해주세요!

이후 다루겠지만 모닝구의 발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고 결정적인 견해를 내놓을 수는 없다. 하지만 위 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기원론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1956년에는 이치노미야 깃사텐에서 모닝구를 제공했음을 알 수 있다. 모닝구의 역사를 쫓을 때 귀중한 자료라 하겠다.

### 히가시오사카시(東大阪市) 기즈리(衣摺)

오사카도 모닝구가 아주 활발하다. 문화주택(文化住宅)<sup>9)</sup>과 시내 영세공장이 쪽 서 있는 이 지역은 1964년부터 모닝구가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가족은 오전 7시 30분에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깃사텐에 가서 모닝구를 먹는다. 다 먹으면 아버지는 공장으로, 아이들은 학교에 간다. 그 이후 9시에 부인이 동네 주부들과 깃사텐에 와서 모닝구를 먹으며 이도바타카이기[井戸端會議]<sup>10)</sup> 그 자체인 대화를 즐긴다. 이러한 광경은 이 주변에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아빠가 시끄러운 집 부인은 모닝구에 갈 수 없다. 부인이 가족 전원의 아침 식사를 만들고 모두 자택에서 먹는다”라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 집조차 일요일은 가족 전원이 모닝구를 먹으러 갈 때가 많은데 이유는 “일요일 아침만은 어머니를 편안히 해주고 싶어서”라고 했다.

### 오사카시 이쿠노구(生野区)

오사카시 이쿠노구는 지역 산업인 합성피혁제 신발 제조와 가방 봉제 등 영세공장과 그곳을 일터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나가야[長屋]로 왠지 낯익은 서민 동네이다. 이러한 이쿠노구의 깃사텐은 동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 대개 동네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깃사텐이 골목길 모퉁이, 나가야의 한구석 등에서 오코노미야키[お好み焼き] 가게 등과 함께 영업 중이다.

오전 8시 정도면 동네 사람들이 차례차례 가게에 온다. 모두 주변의 낯익은 사람들이다. 손님도 남녀 가리지 않고 연령층도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으며 매일 오는 사람, 1주일에 며칠, 일요일만 오는 사람 등 제각각이고 혼자 오는 손님, 부부 동반 등 다양하다.

가게에는 모닝구를 주문하지 커피만 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테이블에 자리 잡으면 주변의 사람이 부른다.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경우도 많다. 가게에 들어서면 순간부터 대화는 시작된다. 그 대화 내용은 공장의 경기(景氣), 야구. 친척과 근처 사람들에 대한 소문, 서

9) \*역주: 일본에서 문화주택은 크게 2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응정실, 현관에 여담이문을 다는 것이 큰 특징인 화양절충(和洋折衷)의 주택으로 다이쇼시기부터 쇼와 초기까지 유행한 주택 양식을 가리키거나 혹은 간사이[関西] 지역 일대에서는 목조 2층 건물로 그 안에 공간을 나누어 다세대가 거주하는 양식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많이 인식된다. 이 논문에서 문화주택은 후자를 가리킨다.

10) \*역주: 이도바타[井戸端]란 생활에 필요한 물을 길거나 세탁 등을 하는 공동우물을 가리킨다. 이도바타가 특히 중요해진 것은 메이지 중기경 도시의 서민들은 나가야에 살면서 수동펌프가 설치된 공동우물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던 여성들이 이도바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즉 비공식적 정보교류의 망으로 역할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역사적 맥락과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 한국어로 마땅한 번역어가 없기에 원문 그대로 이도바타카이기를 쓴다.[참조: JapanKnowledge Lib 世界大百科事典(japanknowledge.com)(검색어: “井戸端會議”, 2020년 5월 20일 검색)

로의 자녀와 손자, 병원과 건강 등이다. 언제나 얼굴을 맞대면서 살기에 단편적 이야기라도 충분히 통한다. 신문을 펼쳤으면서도 중간중간 대화에 끼는 사람도 있다.

모닝구를 다 먹어도 어김없이 이야기를 계속하다 가게를 나온다. 한사람의 체재시간(滞在時間)은 일하는 사람은 15~20분이고 노인은 좀 더 길다. 한사람이 나가면 이번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손님 사이의 회전이 생기는데 대체로 9시 30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

최근 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 생활이 예전만큼 바쁘지 않지만 10여 년 전까지는 무척 바빴다. 하프샌들과 가방제조 등 가내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성기(最盛期)에 아침 7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일해도 일을 못 끝내는 경우가 있었다. 또 개수제 할당 임금 지급이어서 그 정도 무리해서라도 일을 소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공장 사람들은 집에서 조식을 준비하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일했고 이것이 모닝구가 발달한 이유 중 하나다. 모닝구 뿐 아니라 점심, 저녁을 외식 하는 일도 신기하지 않다. 가게에 들어가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가게에 전화해서 요리를 미리 만들어 놓게 하기도 한다. 덧붙이면 이쿠노구에서는 오코노미야키 가게 메뉴가 다양하게 발달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저녁에 외식으로 오코노미야키를 많이 먹어서 가게가 많이 생겼고 그만큼 경쟁이 격렬했음을 반영한다.

더욱이 이케노구는 일본 유수의 재일조선반도계 주민 집단 주거지역이다.(한국, 조선적을 가진 사람만 해도 이케노구 전 인구의 25%를 점한다. 여기에 일본으로 “귀화”한 사람 등을 더 하면 더욱 많은 재일 조선반도계 주민이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모닝구를 먹으러 오는 사람 가운데 재일조선반도계 주민도 많다. 예전부터 같이 살던 근처 ‘일본인’과 동석해 모닝구를 먹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일 조선반도계 주민만 테이블에 둘러 앉는 사례도 있다. 재일조선반도계 주민만 동석할 경우 이야기 주제는 아이들을 동포끼리 결혼시키기 위한 맞선 정보 교환 혹은 새롭게 밀항 온 사람의 정보 등이다. 또 대화 참여자 중 1세대 노인과 뉴커머들이<sup>11)</sup> 섞여 있으면 “조선어와 일본어의 짬뽕[チャンポン]”으로 대화한다. 이러한 것이 재일조선반도계 주민 모닝구의 특징이라 하겠다.

## 오사카시 니시구[西区]

오사카시 니시구의 니시큐쇼상점가[西九条商店街] 주변도 서민 동네에 상응하는 지역으로 역 앞 상점가를 벗어나면 중소기업의 빌딩과 시내 영세공장이 쪽 서 있다. 상점가에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나가야가 밀집해 있는 곳으로 이 지역 깃사텐은 상점가 내 깃사텐과 중소기업, 시내 영세공장 지역 입구 부근 깃사텐으로 크게 구별된다. 후자의 손님은 다른 곳에서 통근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아래는 상점가 내 깃사텐을 운영하는 인물의 이야기이다.

오전 7시 30분에 가게를 개점하고 모닝구 시간은 10시 까지도. 이 시간에 가게에 오는 손님은 매일 아침 약 30인으로 절반 이상이 단골이다. 손님층은 가까운 가게주인과 부인이 많고 가까운 회

11) \*역주: 재일조선반도계 주민 사회에서 뉴커머라고 하면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한 이들을 가리킨다.

사에 통근하는 샐러리맨도 있다. 휴일이 되면 가게주인과 주부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는데 휴일에만 모닝구를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모닝구 때문에 온 사람들은 아침을 집에서 안 먹는다. 자녀가 있는 집의 경우, 아이에게 아침으로 토스트 등을 먹이고 학교에 도시락을 챙겨 보낸 후 모친은 근처 깃사텐으로 간다. 모닝구의 양은 아침을 많이 안 먹어서 커피에 빵과 달걀 정도면 괜찮다는 사람에게 딱 좋다. 남자들도 근처 가게주인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동네 사정과 선거도 이야기하고 상점가의 장래 역시 화젯거리다. 또 가게에 오는 동네 단골과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는 샐러리맨이 의기투합해 망년회와 신년회를 하기도 하는데 가게에서도 이를 응원하기 위해 기부한다.

더욱이 니시구와 사례 5의 이쿠노구 등의 깃사텐은 보통 봄과 가을에 가게 입구의 자동문 스위치를 끄고 문을 열어놓는다. 이에 대해 가게주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민 동네의 깃사텐은 이도바타카이기 장소라서 (문을 \*번역자) 닫으면 사람들이 가볍게 들르지 못하고 이도바타카이기도 하기 어렵다. 냉·온방을 할 필요 없는 봄과 가을만 문을 열어놓지만 사실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열어놓고 싶다. 봄과 가을 개방하는 것이 보통이고 겨울과 여름에는 부득이하게 닫는 것이다.

### 효고현 아마가사키시(尼崎市)

상점가 뒷편 나가야와 문화주택이 세워져 있는 한신쿠이세역(阪神杭瀬駅) 일대는 서민 동네의 분위기가 농후하다. 이 주변 나가야 앞에는 식목(植木)과 분재가 좁게 쪽 서 있고 주민들은 빠지지 않고 매일 물을 준다. 낮익은 사람이 지나가면 2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하기도 한다. 상점가에 물건을 사러 가면 몇몇 사람이 “아이고 오늘은 뭘 드세요?”라고 말을 건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자기 집에서 키우는지 동네 아줌마네에서 키우는지 모를 정도로 생활하는 지역이다. 이곳에 사는 70대 여성 A씨의 모닝구 관련 생활은 다음과 같다.

A씨는 혼자 살면서 부동산업을 하는 여성으로 아침은 매일 깃사텐이다. 모닝구를 정확히 모닝구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모닝구 가자구” “매일 아침 모닝구 오네, 00씨”라는 식이다. 근처 깃사텐은 10집 정도 있지만 그녀가 가는 곳은 그중 3집으로 특히 아메리칸[斐米利館]이라는 가게가 마음에 든다. “아메리칸이 제일 좋데이. 마마랑도 사이 좋고” 다만 아메리칸은 토요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라서 주말에는 다른 가게로 간다. 아메리칸은 이마후쿠[今福]의 상점가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구석에 있다.

A씨가 모닝구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남편이 사망하고 혼자 살면서부터였다. 혼자 말없이 먹어도 이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침 이외에 점심, 저녁도 자주 외식을 하고 외식을 하지 않을 때는 최근 근처에 생긴 편의점에서 주먹밥 등을 사서 먹는다. 밖에서 식사할 경우, 점심으로는 오코노미야키집과 우동집, 저녁은 선술집에서 유도후[湯豆腐]와 맥주를 먹는다. 혼자서는 채소 등을 사 와서 집에서 식사를 만들어도 다 먹지 못할 정도로 많고 재료 역시 다 쓰지 못하기에 불경기이지만 세끼 다 외식을 한다고 했다.

아메리칸의 주인(마마)은 “아시아[芦屋] 출신 아가씨”로 20년 전부터 생활보다 취미라는 생각으로 가게를 시작했는데 주인이 한신타이거즈의 골수팬이라서 가게 안은 한신 선수들의 사인지와 응원 나팔, 인형으로 장식되어 있다.

아메리칸의 손님은 동네 주부 이외에 60대 이상 노인이 많다. 최고령은 90세라고 한다. 손님들은 “모두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뿐이야. 다양한 괴로움, 슬픔. 기쁨을 극복하고 우아한 기분의 사람들”이다.

A씨는 8시 반부터 1시간 정도를 이 가게에서 보낸다. 이때 400엔에 커피, 토스트. 삶은 계란, 샐러드를 주는 모닝구를 먹으며 마마나 단골손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이야기 내용은 한신 타이거즈나 다른 스포츠 이야기, 손자와 남편 또는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 TV 방송의 화젯거리인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손님끼리 옥신각신 다투기도 한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 많지. 그래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서 예의 없는 사람, 자기 멋대로인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엄청 있다구. 다양한 인간과 여러 인간군상이 있지”라고 말했다.<sup>12)</sup>

### 고베시 나가타구[長田区]

고베시 나가타구는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에 의해 옛 거리가 사라져 버리기 이전까지 합성피혁제신발산업이 시내 영세공장과 나가야가 우글거리는 서민 동네였다. 지진 이후 부흥마을만들기<sup>13)</sup>가 시행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98년 1월 지진부흥의 일환(一貫)으로서 나가타구 마노지구에 시영(市営)의 콜렉티브주택 “마노후레아이주택[真野ふれあい住宅]”이 탄생했다. 이 후레아이주택에 대해서 기술한 모리쿠리 시게카즈(森栗茂一)는 “콜렉티브주택이란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를 하지만 입주자 전원이 사용 가능한 부엌, 식당, 담화실 등 공동공간을 갖춘 집합주택”으로

3층 건물에 총 29호의 시영주택인 마노후레아이주택은 문을 닫으면 자신만의 집이 되고 문을 열면 골목길 같은 넓은 복도에 화분이 있고 이웃과 이어지는 발코니가 있다. 공유 거실에서는 모두와 만나고 공유 부엌에서는 요리하여 대가족같이 모두 식사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있는 가족, 독신자 젊은 세대, 고령자가 같이 사는 후레아이주택 (森栗, 一九九八、六三)

라고 했다.

한달에 이틀, 마노후레아이주택의 공유 거실에서 “모닝구 깃사텐”을 연다. 미리 안내 포스

12) 본 사례 조사에 있어서 사례 중 여성의 손자인 무사시대학 인문학부생인 나카니시 미즈나[中西美津奈]씨의 협력을 었었다. 이를 명기(明記)하여 감사를 표한다.

13) \*역주: 원어로는 “復興まちづくり”로 이는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는 마을만들기이다. 우선 이 개념에서 부흥의 목표란 재해로 인한 다양한 피해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피해지의 삶을 회복하며 생기와 희망을 되찾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위한 마을만들기 운동이다. 이를 위해 주거가 불안정해진 주민들을 위한 주택, 붕괴된 도시 인프라망 건설과 같은 물리적 활동을 포함해 지원 네트워크 조직, 지역 내 주민 협의체 조직 등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

터를 후레아이주택 게시판과 근처 전봇대 등에 붙인다. 아침 8시부터 모닝구인데 당일에 자원봉사자와 후레아이주택 주민이 같이 준비를 한다. 커피 한잔에 100엔으로 후레아이 주민과 근처의 하마조에[浜添]2초메[丁目], 3초메 주민들이 참가할 수 있다. 모닝구라는 장을 통해 후레아이주택 주민과 동네 주민 사이의 만남을 활성화하자는 시도이다.

이러한 발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농후한 모닝구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나가타구에서도 깃사텐 모닝구는 아주 활발히 이뤄졌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 나가타구 고령자의 일상생활을 조사했던 모리쿠리 시게카즈의 기술에도 모닝구가 등장한다. 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아침은 깃사텐에서 모닝구세트. 먹는데 채 1시간이 안 걸린다. 스포츠신문을 공들여 읽으며 은발의 맵시 있는 마스터와 한신타이거즈에 대한 불평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10시 전 병원 진료실 앞 의자에 친구와 나란히 앉아 서로의 푸념을 늘어놓는다. 간호사가 진료 때 손을 잡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간다. 생선가게 앞에서 선 채로 이야기하고 두부집에서 점심 반찬인 고마도후[ごま豆腐]<sup>14)</sup>를 산다. 저녁으로 정육점에서 야키부타[焼き豚]<sup>15)</sup> 100그램을 사면서 '조금만 잘라줘'라고 부탁하며 보따리를 건넨다. 시장에서 물건을 매개로 한 교류와 대화는 고령자의 하루에 악센트를 부여한다. 집으로 돌아와 TV 시대극을 보면서 고마도후를 먹는다. 목욕탕에 갔다가 타코야키집에서 생맥주 한잔을 마신다. 야키부타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한다. (森栗、一九九八、四六~四七)

이를 통해 모닝구가 하루 생활 리듬 속에 확고한 위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지진 전 상황을 고려하면 콜렉티브 주택의 “모닝구 깃사텐”은 이 지역고령자들에게 뿌리내린 생활 방식의 부흥을 목표로 한다.<sup>16)</sup>

### 고베시 신자이케[新在家]

다른 부흥주택(復興住宅)에서도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깃사텐”이 열린다. 예를 들어 고베시 신자이케에 있는 부흥주택은 집회소(集会所)를 이용하여 “커뮤니티 찻집(茶店)·신자이케미나미3호동[新在家南3号棟]”을 개점했다. 신자이케 부흥주택은 고베시, 효고현, 공단(公団)<sup>17)</sup>이라는 세개의 운영주체가 세운 총 65호의 건물이다. 한신전철 신자이케역 남측

14) \*역주: 흰 참깨를 빻아 갈분을 섞어 넣고 다시마 국물을 부어 익힌 다음 틀에 넣어 식혀 두부 모양으로 굳힌 식품[참조: 네이버 일본어 사전(<https://ja.dict.naver.com/>); 검색어 “ごま豆腐”, 검색일: 2020년 5월 24일.]

15) \*역주: 찹슈라고 불리는 음식과 같은 것으로 일본에서는 삶는 방법으로 많이 만든다.

16) 필자는 2001년 11월 30일, 모리쿠리 시게카즈[森栗茂一]씨의 안내로 고베시 나가타구 콜렉티브 주택을 방문할 수 있었다. 명기하여 모리쿠리씨에게 감사를 올린다.

17) \*역주: 현재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소위 UR도시기구(UR都市機構)의 전신(前身)으로 1981~1999년 일본주택공단과 택지개발공단이 1981년 주택·도시정비공단(住宅・都市整備公団)으로 통합되었고 1999년 도시기반정비공단(都市基盤整備公団)으로 바뀌고 2004년 이후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都市再生機構)가 되었다. 건설 시점을 생각했을 때 이 공단이란 주택·도시정비공단을 지칭한다. [참조: UR都市機構 “연혁”(https://www.ur-net.go.jp/aboutus/history.html)]

## 아카루트 2020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

에 만들어졌는데 단지 내 일상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육지의 외로운 섬 같다. 쇼핑 등을 하려면 가까운 국도를 건너가야지만 가능한 위치다. “커뮤니티чат집”은 2001년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월, 수, 금요일에 운영했고 이후 목표는 매일 운영하는 것이다. (同事業 実施計畫書) 운영 시간은 10시 30분부터 15시 30분으로 커피, 홍차, 우유 등 마실 거리를 중심으로 케이크, 빵 등도 준비했고 가격은 전부 100엔이다. 커뮤니티чат집을 운영하는 “부흥주택·커뮤니티응원단”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현재, 부흥공영주택에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한 뒤 바뀐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동네 사람이나 지역과 교류 없이 집에서 두문불출하는 거주자가 적지 않습니다. 또 건전한 식생활이 불가능해 낮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긴급한 과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과 만나서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편 가까운 이웃과 만나서 무엇인가 하고 싶고 사는 보람도 찾고자 하는 의욕을 지닌 거주자들을 위한 장이 없다는 것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라면서 이러한 과제의 대안 중 하나로 커뮤니티чат집을 기획했다고 한다. 커뮤니티чат집의 개점 시간이 10시 30분이어서 그 자체가 모닝구는 아니지만 자원봉사 등 스태프가 융통성을 발휘해 이렇게 하게 되었다. 커뮤니티чат집의 의도는 마노후레아이주택의 모닝구 chat집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해도 좋다.

### 히로시마시[広島市] 나카구[中区]

히로시마시 내의 깃사텐에서도 관습으로서의 모닝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나카구 오테마치[大手町]의 다카노바시[鷹野橋]상점가에 있는 “루에브라질[ル-エぶらじる]”은 1956년에 “모닝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해 확인되는 가게이다. 이 가게는 1952년 “브라질[ぶらじる]”라는 이름으로 창업했다. 모닝구 서비스는 창업자인 스에히로 다케지[末広武次]씨(1919년 생)가 1950년대 고안한 것으로 커피, 마가린을 바른 토스트 위에 계란프라이를 올린 것으로 커피 50엔에 10엔을 더한 60엔으로 제공했다. 당시 는 커피도 빵도 진기하고 또한 계란도 귀한 거라서 이 메뉴는 “꿈의 3종 세트”라고도 불렀다. 이것이 크게 성공하여 주문이 매일 아침 몇백개의 세트나 되었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에어컨과 텔레비전도 이른 시기부터 가게 안에 설치되어 하이칼라 가게로 통했지만 모닝구 서비스도 다른 곳에는 없는 새로운 시도로서 큰 인기를 누렸다. 평판을 듣고 온 주간지에서 취재하여 기사화 되기도 했다.



[사진 6] 히로시마시 루에 브라질  
(출처: 2008년 저자 촬영)



[사진 6] 히로시마시 루에 브라질 의 현재  
모닝구 세트(출처 : 2008년 저자 촬영)

#### 야마구치현[山口県] 시모노세키시[下関市]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제일조선반도계 주민 집주(集住)지역에서는 아침 8시 30분이 넘으면 나가야의 중년 여성들은 차례차례 마음 맞는 동료 중 한 사람의 집에 모인다. 그곳에서 아침으로 인스턴트커피와 식빵을 먹는데 이곳에서는 이를 “모닝구”라 한다. 이처럼 모닝구라는 표현은 모닝구 서비스를 하는 깃사텐만 아니라 개인 집을 모임 장소로 하더라도 통용될 정도다. 8시 30분에 모이는 이유는 모두 그 시간까지 하는 NHK의 연속아침드라마를 보고 난 이후 모닝구에 참여해서다. 이야기 주제는 깃사텐 모닝구와 같다. 하지만 시모노세키에는 보따리장사[ポッタリチャンサ]라 불리는 한국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에 행상하는 여성이 많아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어느 곳의 점쟁이가 잘 맞춘다라던지 부산에 제일조선반도계 주민과 재혼을 희망하는 여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이다.

9시 30분에서 10시가 되면 해산하여 이후 어떤 사람은 파칭코 가게로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여기저기 가야할 곳으로 외출한다.

#### 에히메현[愛媛県] 마츠야마시[松山市]

마츠야마시 시가지도 모닝구가 활발하다. 이곳저곳의 깃사텐에서 새벽부터 온 노부부의 모습과 동네 60대 여성들이 며느리 험담을 포함해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주부들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과 시어머니 험담 같은 대화를 하는 등의 풍경을 볼 수 있다.

시내의 깃사텐 모미노키[モミの木]에는 모닝구 마츠야마 발상설이 전해진다. 1967년 이 가게에서 시작한 모닝구가 “일본 최초의 모닝구 서비스”라는 것이다. 경영자 가토 토모코[加

藤智子]씨의 자전(自伝)은 다음과 같다.

모닝구 서비스라 하는 커피에 토스트, 삶은 계란을 같이 주면서 100엔에 제공했습니다. 커피 80엔으로 이미 이익을 보기에 토스트와 삶은 계란은 원가인 20엔에 제공하자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새롭지 않지만 이것이 일본 최초의 모닝구 서비스였습니다. 손님은 100엔에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애초에 모닝구 서비스를 시작한 계기는 샐러리맨이 소식을 많이 거른다는 신문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A신문 기자에게 “우리 가게에서 아침을 내면 어떨 것 같아?” 조문을 구하니 두말없이 “그거 좋네”라고 찬성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이 아닌 깃사텐이잖아. 우리가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지금 같이 깃사텐이 카레나 필리프를 내놓는 것은 상상도 못할 시대였습니다. 먹거리라야 고작 토스트나 삶은 계란을 끼운 샌드위치였습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계란 껍질을 까서 샌드위치를 장만하기가 힘들잖아. 그렇다면 역시 토스트일려나... 계란도 삶는 것만 하면 귀찮지 않지”라고 말한 것이 6장짜리 빵 1장을 토스트로 만들어 세 조각으로 자르고 삶은 계란 1개 그리고 커피를 같이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지가 적었기에 비교적 척척 정하기는 했지만 설마 이 조합이 전국 깃사텐에 퍼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모닝구 서비스라는 호칭을 결정하기까지 약간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朝食]’은 좀 그렇고 ‘아침 정식[朝定食]’도 이상한데...” (중략) “그렇지 외국에서는 아침이라 하면 ‘모닝’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손님들 덕을 봤으니 조금이라도 손님에게 돌려드린다는 뜻에서 ‘서비스지’ 이것을 알려준 이가 앞에서 나온 신문기자였습니다. 저는 몹시 감탄하며 곧바로 아침 식사 세트를 ‘모닝구 서비스’라 이름 붙였습니다. 쇼와 42년(1967년 \*역자) 7월 모닝구 서비스를 이상한 일본식 영어라는 등의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는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加藤智子 『女じゃけん、負けられん』商業界、一九九五)

모닝구 “모미노키” 발상설은 위 인터뷰를 포함해 TV에서도 방영될 정도로 여러 차례 다뤄졌고 마츠야마 시내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안다고 여겨진다.

이상은 일본열도 내의 사례였다. 그런데 일본 국외, 예를 들면 아시아 각지 등에도 모닝구에 상당하는 습관이 있다. 일본 사례를 상대화 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이상 약간의 소개를 하고자 한다.

## 2. 아시아의 ‘모닝구’

### 홍콩

홍콩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식을 외식할 때가 많다고 한다. 실제 홍콩 거리를 걷다 보면 이른 아침인 6시부터 포장마차와 식당이 열리고 손님이 죽과 음다(飲茶)[차를 마시면서 두, 세개의 가벼운 요기거리를 먹고 있다. 중국 구왕둥(廣東)지방의 식습관이라고 한다.]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홍콩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란 필자의 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콩에서는 집에서 조식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홍콩에서는 아내가 아침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모두 집과 직장에서 가까운 식당이나 포장마차에서 조식을 먹는다. 혼자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나 동료와 먹는 사람도 있다, 출근길과 같이 아주 바쁜 사람은 급하게 먹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수다를 떠는 경우도 많다.

홍콩의 음다에 대해서 다뤘던 나가쿠라 유리코(永倉百合子)는 원래 음다는 이른 아침의 습관이고 그것이 “점점 연장되어 지금의 음다 타임은 점심 이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매일 아침 음다로 활기찬데 일요일과 경축일이 겹치는 날 아침은 특히나 활기로 가득 찬 광경을 볼 수 있다. 휴일 아침이니깐 아직 혼잡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면 먼저 온 사람들이 태반의 테이블을 차지했다. 대부분 아줌마 혼자 테이블에 딱하니 앉아 있는데 이는 미리 가족을 위해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일찍 일어난 노인이 먼저 와서 곧 올 자녀와 손자의 자리를 맡은 것이다. 우리가 여기는 비었다고 생각해 그 테이블에 가까이 가면 딱 잘라 “여기 자리 있어요”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인기 있는 요리집[酒樓]은 휴일 아침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

대개 신문과 잡지를 파는 노점이 요리집 입구에 있어 그곳에서 광고면이 많은 두꺼운 신문을 사와 똑똑 돌려놓는 사람도 있고 식사 전 가게에서 설치한 포트의 뜨거운 물로 작은 접시와 그릇을 한번 씻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변을 바쁘게 돌고 있는 수레에서 골라 먹으면서 계속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불일을 정리한다. 이후 만복(滿腹)이 되면 이 활기찬 장소를 뒤로 한다.(永倉, 二〇〇二, 四八~四九)

아침으로 음다를 외식하는 경우는 홍콩뿐 아니라 구왕똥지방의 일반적인 습관 같다. 가케켄(頁意萱)씨는 “구왕똥 사람은 집에서 아침을 안 먹고 ‘취자오차[吃早茶]’라고 하는 아침 식사를 밖에서”(質·石毛 二〇〇〇、二〇六) 먹는다. 또 아침을 외식하는 습관은 구왕똥 이외에도 중국 각지에 있는 듯한데 각지의 상세한 사례 수집은 이후 과제로 한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에서는 집에서 아침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고 모두 근처 식당에서 먹는다.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가 각자 출근 시간에 맞춰 식당에 가는데 남편이나 아내 중 누군가가 아이를 학교 시간에 맞춰 식당에 데리고 간다는 사례도 있다. 아침을 바깥에서 사먹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라서 집에서 아침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다. 돈 없는 가난한 노인만이 외식을 하지 않고 스스로 밥을 차린다고 한다. (우한대학의 쉰취[宣琦]교수의 가르침에 따른다.)

## 베트남

베트남도 많은 사람이 아침을 밖에서 먹는다. 필자는 호치민시와 하노이시의 시가지를 걸어 다닌 적이 있다. 그때도 새벽 5시부터 많은 사람이 노상(路上)의 포장마차와 노점에서 포

(쌀로 만든 국수)를 조식으로 먹고 있었다. 현지 사람에게 물으면 “아침을 자택에서 조리해 먹는 사람은 아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가정도우미를 고용한 정부 고관집과 부유층 뿐이다. 서민은 모두 집 밖에서 먹는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사진 8] 베트남 호치민 포장마차 조식풍경  
(출처: 2002년 저자 촬영)



[사진 9] 베트남 하노이 포장마차 조식풍경  
(출처: 2002년 저자 촬영)

사회심리학자로 하노이에 체제하여 당지(當地)의 골목길 생활세계를 조사했던 이토 테츠시 [伊藤哲司]도 베트남의 외식식(外食式) 조식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하노이 사람들은 집에서 아침을 만드는 습관이 전혀 없고 골목길 가게에서 포(베트남 국수)와 소이(찐 찹쌀) 등을 자주 먹는다. 인기 있는 포가게는 자리가 꼭 차고 회전율도 빠르다. 골목길에 면한 가게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갖췄다. 아주머니가 바쁘게 포카(닭고기가 들어간 국수)와 포보(소고기가 들어간 국수)를 만들면 아저씨와 딸들이 각각 테이블에 분주히 옮긴다. 하노이의 학교는 2부제가 기본이어서 일찍부터 오전 7시에 시작하는 아침부 학생과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중략) 단정한 옷차림의 어른도 많다. 식사를 끝내면 급히 일본제 오토바이에 올라타 직장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다. (伊藤, 二〇〇一, 八)

또 상사맨으로서 현지에 체제하는 인물의 에세이에도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다.

아침, 베트남 사람은 거의 집에서 요리하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외식인데 하노이의 포카(닭고기를 넣은 쌀국수)부터 죽, 밥, 만두, 기타 등이 있다. 저녁만 집 안에서 요리를 한다. 베트남인 친구에게 ‘가족이 매일 아침을 밖에서 먹으면 살림살이가 정말 힘들지?’라고 물으면 ‘아침 식사에 비용은 결국 들어요. 전에는 정말 썼지만 최근엔 아침이라고 무시 못 할 금액이죠. 집에서 만들면 확실히 싸지만 집에서는 좀...’ 그도 아내의 노동을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그래서 아침은 밖에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집 안에서 조리용 연탄에 불을 붙여 조리하면 집도 더워진다. (중략) 5시 반에 아침을 먹는 사람도 아주 많아 4시 반부터 무수한 아침 식당이 활동을 시작해 5시면 별의별 노상 상점이 이동한다. (樋口, 一九九九, 一二三)

## 프놈펜

베트남의 인접국인 캄보디아 도시도 아침을 외식하는 습관이 있다. 이하는 이시게 나오미치 [石毛直道]와 케네스 런들[Kenneth Ruddle]에 의한 보고서다.

다른 동남아시아의 도시민과 같이 원래 프놈펜 시민은 바쁜 아침에 외식을 자주 한다. 일하는 이들의 아침은 출근 전 가까운 가게에서 육류와 생선을 넣은 죽이나 쌀로 만든 국수를 한그릇 후루룩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노점에서 이 같은 민중의 식사는 전혀 못 먹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가스나 전기의 공급이 안 될 경우 가정에서 아침을 준비하기 힘들어서 새벽부터 먹거리를 파는 노점은 활기차다. (石毛·ラドル, 一九九二, 二〇)

## 방콕

태국의 방콕은 아침만 아니라 모든 식사를 외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중 부엌이 없는 집도 있다고 한다. 이하 모리에타 타카시(森枝卓士)의 보고서를 인용한다.

포장마차나 음식점에서 먹거나 비닐봉지 안에 든 밥과 반찬을 사와 그릇에 모으면 준비 끝이라 할 정도다. 충격은 이 같은 식사 준비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한정되지 않고 집에 부엌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평소 요리 안 해도 놀랍지 않다. 거짓말 같지만 이 지역 한 요리 선생님께서 가정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가르쳐 달라면 하겠는데 집에서는 전혀...’라면서 사서 올 때가 더 많다고 했다. 처음에는 매우 놀랐는데 사정을 알게 된 후 어느 정도 납득했다. 먼저 외식이라도 포장마차라면 가정에서 만들 때와 예산이 비슷하다. 빈부차가 아직 심해 인건비가 싸고 더불어 재료도 싸게 사기 때문에 직접 시장이나 슈퍼에서 재료를 사서 만드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 가족 수가 많은 가정이 아니면 사 오는 편이 싸다고 해도 크게 오바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일본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서 점은 층이 아니라도 맛별이가 일반적이다. 자연스럽게 식사는 외식으로 할까, 반찬을 사서 올까 하는 구도다. (森枝, 一九九七, 一〇二~一〇三)

## 싱가폴

일찍이 세계 유수의 슬럼가가 전개되었던 싱가포르는 1960년대 특히 1965년 싱가포르공화국 건국 이후 근대화 정책에 의해 현재 싱가포르의 전 인구의 85% 이상이 HDB(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주택개발국) 플랫이라 불리는 단지에 거주한다. 각 단지의 1층에는 잡화점과 식당부터 이런저런 가게가 쭉 있고 그 가운데 하나, 어떤 단지라도 반드시 있다고 할 수 있는 가게가 커피숍(중국어로는 咖啡店)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커피숍은 싱가포르의 긴자로 불리는 오차드로드[Orchard Road] 등과 같이 세련된 곳이 아니라 셀프서비스로 커피, 빵, 프라이드 라이스(볶음밥?), 볶음국수, 바쿠테(肉骨茶)<sup>18)</sup> 등을 구입해 자리에서 먹는 형식을 가리킨다. 이같이 대중적인 커피숍은 “오래된 가게나 하우스 동네의 구석에” 특

히 많고 가게의 풍경은 1층에 “냉방 등은 있을 리 없는 양쪽 문을 열어 둔 가게에 거울음이 낀 천장과 거의 비슷하게 허름한 선풍기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이 고작” (田中, 一九八四, 一三二~一三三)이다.

가게 안은 통풍이 나빠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잘 놓지 않는다. 대신 바람이 불어 서늘하고 쾌적한 가게 앞 보도 위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기에 보도 위부터 자리가 채워진다. 현재는 커피숍 경영자의 출신이 다양해졌지만 10년 정도 전만 해도 하이난섬[海南島]과 푸저우[福州] 출신자가 많았다. (山下, 一九八七, 五五)

단지 사람들은 아침을 보통 집 아래 커피숍 혹은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먹고 대개 매일 가는 가게가 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에게 구매한 빵 등을 먹이고 어른은 커피숍이라는 패턴이 많다. 혼자 커피숍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부부, 가족, 직장 동료, 기타 친구 같은 동행자가 있다. 혼자 갈 때는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고 동행자가 있는 경우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곳에서의 화젯거리는 시답잖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소문, 경마 등 도박, 타블로이드판 신문의 기사감이 될만한 이야기, 대단치 않은 정치적 잡담을 나눈다고 한다. 싱가포르의 국가의 국민관리가 엄격해서 국민이 정부를 공공연히 비판할 때는 전혀 없다지만 커피숍에서는 풍자적으로 정치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한다.(정치를 비판하는 다른 방식은 택시 안에서 운전수가 손님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정부 스파이가 커피숍에 손님으로 위장해있다”라는 포크로어(folk-lore)도 있다. 실제 그렇다기보다 사람들의 정치 비판에 대한 자기규제의 심리적 표현이 아닐까 하는 의견(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림벡추[林明珠] 교수에 따르면)도 있다.

필자가 현지 사람에게 아침을 외식으로 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은 “이게 습관이라” “아침에는 바빠서 집에서 못 만든다” “밖에서 사 먹는 편이 싸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침 이외에도 싱가포르에서는 외식이 활발하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중국 연안부에서

출가(出稼)한 노동자가 모인 곳으로 특히 여성 인구가 적어 자연스레 도시에 외식이 발달했다. 그 역사가 현재 식습관에도 이어지는 것이다.(石毛·ラドル 一九九二, 七九~八〇)

이민자 가운데 적은 자본이지만 독립해서 장사를 하고싶다는 사람들이 점차 포장마차를 내었다 (前川 一九八八, 四〇)

라는 해석도 있다.

18) \*역주: 바쿠테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대에서 일종의 보양식으로 먹는 음식으로 돼지갈비와 각종 약재를 넣어 푹 고아서 만든 음식을 뜻한다.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 검색어: 바쿠테; 검색일 2020. 6.10]



[사진 10] 싱가포르 커피숍의 조식풍경1  
(출처: 2002년 저자 촬영)



[사진 11] 싱가포르 커피숍의 조식풍경 2  
(출처 2002년 저자 촬영)

### III. 약간의 검토

이제까지 기술에 입각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하여 이후 모닝구를 둘러싼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왜 모닝구를 행하는가?

필자는 일본에서 행해지는 모닝구를 조사할 때 반드시 모닝구를 행하는 사람에게 왜 자택에서 조식을 먹지 않고 깃사텐에서 먹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질문의 답변 중 “습관이라서”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유를 설명한 답변도 있는데 그 이유는 다방면에 걸쳐있고 또 복잡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2가지로 구분하면 ① 시간·노력의 소모를 경감하는 수단 ②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필요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①의 이유를 포함하는 회답으로 “맛벌이라 아침에는 바빠서 집에서 아침을 만들 시간이 없다” “가내 공장(家内工場) 일이 바쁘는데 아침을 만들 여유가 있으면 제품을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귀중한 일요일 만큼은 모친을 편안히 해주고 싶다” “여자는 하루 내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해준다. 그러나 모닝구는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닌 가게 사람에게 받는 것이다. 작은 사치” “매일 아침, 식사를 차리기 귀찮고 편하고 싶어서” 라는 것들이다.

노동과 가사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아침을 외식하는 것은 시간과 체력의 소모를 경감 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오사카시 이쿠노구와 고베시 나가타구의 하프샌들, 가방봉제

등 가내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최근에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 가장 활발했을 때는 아침 7시부터 한밤 중인 1시, 2시까지 일만 해도 일을 못 끝냈다. 그래서 집에서 아침을 차리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고 조식은 깃사텐 모닝구가 되었다. 이 경우 점심, 저녁 역시 외식이어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고 미리 자주 가는 가게에 전화해 요리를 만들어 두고 바로 가게에 들어가서 먹기도 했다고 한다.

②은 “모닝구에 나가지 않으면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일찍 일어나는 노인에게 있어서 모닝구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즐거움”“모닝구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도회(都會)’정보에 늦어져”라는 언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더욱이 ‘도회’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도시부 깃사텐에서 몇 집 떨어진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어 결코 ‘시골’에 살지 않음에도 이곳에서 말하는 ‘도회’란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소, 곧 깃사텐을 의미한다. 이 표현처럼 모닝구는 단순히 마시고 먹는 장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된다.

아침이라면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워도 괜찮다. 그러나 편의점 도시락에는 사람 간의 이야기가 없지만 모닝구에는 대화와 만남이 있다. 집에서 아침을 먹고 커피만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단골손님과 마스터와의 이도바타카이기가 목적이다.

라는 오사카 시내의 모닝구 단골 손님의 이야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모닝구의 존재 양상을 여실히 표현하는 언설이다. 이상 모닝구가 이뤄지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고찰했고 실제로 이러한 이유의 복합으로 모닝구가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 2. 일본에 있어서 분포

깃사텐 메뉴로서 모닝구 서비스, 모닝구 세트는 일본 전국, 특히 도시에 있어서는 대부분 있다고 예측된다. 이를 이용하는 매우 바쁜 샐러리맨 같은 이들 역시 폭 넓게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단순히 메뉴로서 모닝구 서비스, 모닝구 세트가 없어도 또 주로 샐러리맨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정주부, 아이, 노인, 가내공장 사람 등 훨씬 광범위한 사람들이 그 거주 지역에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깃사텐에서 조식을 먹는 현상(곧 지역의 습관으로서 모닝구)이 존재하고 그 분포는 전국적이고 보편적이다.

필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습관으로서 모닝구는 주쿄권, 한신권<sup>19)</sup>, 주시코쿠권<sup>20)</sup>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도 도시부의 서민 동네 같은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진다.

한편, 도쿄와 그 근교 등에서는 “지역 습관으로서 모닝구”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예로 주쿄권·한신권·주시코쿠권이든 현지의 많은 사람이 “모닝구”라는 말을 깃사텐에서 아침을 먹는 습관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사카의 중학교 영어 시험

19) \*역주: 간사이 지역의 주요 도시인 오사카, 고베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일대를 가리킨다.

20) \*역주: 일본의 규슈와 간사이 사이의 주고쿠[中国]와 시코쿠[四国] 일대의 9개현 지역을 가리킨다.

에 morning을 “조식”이라 번역한 학생이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 정도다. 이에 반해 도쿄 오오타구[大田区]와 아라카와구[荒川区]에 있는 서민적 분위기의 동네라도 “모닝구.... 뭐야 그게?”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이는 모닝구가 깃사텐에서 아침 먹는 습관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안 알려졌기 때문이다.

도쿄와 그 근교에서 커서 현재도 그곳에 사는 대학생 등은 필자가 민속학 강의에서 한신권의 모닝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코멘트를 했다.

이전에 TV에 나온 예능인이 ‘우리 친가 쪽(간사이)은 모두 아침밥을 깃사텐에 먹으러 갑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재미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였네요.(무사시[武蔵]대학 학생, 도쿄 출신)

저희 할머니는 아마가사키[尼崎]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어릴 적 놀러가면 매일 아침 어째서인지 ‘아메리칸’이라는 깃사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단순히 아침밥을 차리기 귀찮아 하는 버릇이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만 선생님 말씀처럼 더욱 깊은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이타마에는 ‘모닝구’는 없습니다(무사시대학 학생, 사이타마현[埼玉県] 출신)

이 같은 코멘트에서 도쿄와 그 근교의 사람들에게 모닝구는 연이 먼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 예를 들면 도호쿠[東北] 지방의 한 도시인 아키타시[秋田市]의 아키타역 인근 상업지구 깃사텐에 모닝구 세트 메뉴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샐러리맨이며 ‘지역의 습관으로서 모닝구’ 등은 전혀 없다.

지방 내 모닝구 분포가 농후하더라도 지역과 계층에 따라 모닝구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오사카·고베 주변이라도 소학교 때부터 고교까지는 한큐[阪急] 히바리가오카하나야시키[雲雀丘花屋敷]역, 대학은 한큐 몬도야쿠진[門戸厄神]역, 대학원은 한큐 롯코[六甲]역, 쇼핑은 한큐 우메다[梅田]역 한큐백화점이라는 한큐연선[阪急沿線]에서 자라 우메다보다 남쪽으로 간 적이 없다(이 경우는 대개 서민적 생활양식과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생활권이다)는 3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이 모닝구를 하러 나간 사람은 전혀 없었고 모닝구라는 것이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전장(前章)의 기술과 이 여성의 발언 등으로 추측하면 모닝구는 도시부 안 공업지대, 특히 가내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활발한 습관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서술하면 주교권 사례에 보이듯이 교외형 모닝구, 즉 ‘휴일 아침 가족이 교외 깃사텐에 차를 타고 가는’ 타입(“쉬는 날만큼은 어머니를 편히 해주고 싶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을 설명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 3. 모닝구의 역사

지금까지 기술을 통해 1950년대 이미 히로시마시와 이치노미야시에 모닝구 서비스가 있었고 1960년대 중반에는 도요하시시와 마츠야마시도 모닝구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도요하시와 마츠야마는 특히 “출근 전 손님”“샐러리맨”을 의식하여 제공했고 히가시오사카에서도 1964년

부터 모닝구가 행해졌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

모닝구의 “발상”은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원래 이러한 메뉴와 서비스는 일정한 시간대 속에서 복수의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기에 기원을 특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발상지와 가게에 상관없이 모닝구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사정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내가 사는 히가시오사카시 기즈리[衣摺] 주변에서) 모닝구가 유행한 시기는 쇼와 39년(1964)생 딸이 막 태어났을 때부터다. 변화가(오사카 시내를 가리킴)는 더욱 빨랐는지 모르겠다. 각 집에 수도가 들어온 것도 이때다. 이전에는 세탁과 취사는 공동수도에서 했고 공동수도 앞에서 근처 부인들이 항상 이도바카이기를 했다. 이것이 각호 별로 급수(給水)가 이뤄지면서 모닝구가 이도바카이기를 대신했다.

공동정호(共同井戸)와 공동수도를 사용하지 않게 된 시기와 모닝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겹친다는 기억은 각지에서 자주 들었던 바다. 즉 모닝구는 각호 별 급수의 실현으로 문자 그대로 공동정호·공동수도에서의 이도바카이기[井戸端會議]가 소멸하던 상황 속에서 등장했고 이것이 이도바카이기의 기능을 대신했다는 것이다.

당초 모닝구는 깃사텐 경영자 측에서 “출근 전 손님”“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로 의도되었지만 이것이 지역 생활자. 특히 여성의 이도바카이기 장으로서 수용된 것이다. 공급자의 의도와 다른 수용의 실태가 흥미롭다.

#### 4. 아시아 가운데서의 모닝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아침을 외식으로 하는 습관을 찾으면 널리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홍콩,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의 사례를 알 수 있고 어디서나 도시부의 삶에 뿌리 박힌 습관이 되었다. 위 사례에서 아침을 외식하는 이유는 ① 여성의 사회진출, 즉 남녀맞벌이에 따른 가사의 간소화 ② 전기·가스 등 근대적 인프라의 미정비에 따른 아침 준비 부담을 경감 ③ 싼 인건비 등으로 인해 외식을 하는 편이 싸다는 사실 ④ 홀로 나와 일하는 사람이 귀찮은 자취를 피하는 전통 ⑤ 열대기후 이기에 집에서 조리하면 실내 온도가 높아져 이를 피하기 위함 ⑥ 익숙한 동료와 대화 가능이라는 이유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①, ④, ⑥ 등은 일본 모닝구에도 통용할 수 있다. 어쨌든 아시아라는 시야로 보면 도시사회에서 아침을 외식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다. 그러면 일본의 모닝구도 아시아 도시사회와 공통되는 생활문화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sup>21)</sup>

21) 이 점에 대해 예를 들어 모리쿠리 시게카즈(森栗茂一)는 모닝구가 활발한 고베시 나가타구의 서민 동네와 ‘아시아’와 공통성, 나가타 ‘내적 아시아(内なるアジア)’를 파악했다. 곧 나가야와 인도

아시아 외식조식(外食朝食)의 분포는 본고에서 다뤘던 지역 외에도 꽤 넓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후 더 많은 사례 수집과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아시아 도시 사회 중에도 외식조식이 드문 지역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라오스 비엔티안의 변화가는 포장마차가 드물어 인접한 태국과 대조된다. 이 차이에 대해 모리에다 타카시(森枝卓士)는 “도시와 그 주변의 유통, 교통망이 네트워크화된 태국과 그것이 늦었던 라오스의 차(差)”(森枝 一九九七,一〇三) 등을 원인으로 추측했다.

## 5. “버내클러한 공공권<sup>22)</sup>”으로서 모닝구

여기서 모닝구를 유럽에서 발생한 ‘커피하우스’‘카페’와 비교하고 싶다. 17세기 커피와 커피 문화는 터키에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커피하우스’(영국)나 ‘카페’(프랑스)로 불리는 사교 공간이 출현했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크게 활성화됐다. 이 공간은 근대 유럽의 이상적 인간상인 ‘사회적·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한 개인’으로서 ‘시민’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대화를 즐겼다. ‘타자(여기에서는 가족·친족 등 가까운 혈연 이외의 인간으로 해두자)끼리 만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場)’을 ‘공공권’<sup>23)</sup>이라고 하는데 ‘커피하우스’‘카페’는 ‘시민’이 형성한 공공권 즉 ‘시민적 공공권’이라 말할 수 있다.<sup>24)</sup> ‘시민적 공공권’의 특징은 ‘시민’이 이상적·논리적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는 장소라는데 있다. 이 의미에서 ‘시민적 공공권’은 근대 유럽 계몽주의를 체현(體現)한 공간(=계몽주의적 공공권)라고 하겠다.

한편, 모닝구에서 사람들의 언동(言動)은 계몽주의적 합리성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요소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대화[會話]한다는 것은 이성적·논리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는다. 찾아온 손님이 ‘사회적·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한 개인’으로서 유럽적 ‘시민’일 필요는 없

---

네시아의 롱 하우스, 나가야 한구석의 지장(地藏)과 태국의 토지신 사당, 깃사텐 모닝구와 중국·인도의 포장마차 조식을 열거하며 “고도 경제성장까지 나가타에는 ‘내적 아시아’가 있었다”라고 논했다.[참조: 森栗 一九九九b]

22) \*역주: 2002년 간행된 기존 논문에서는 또 하나의 공공권[もう一つの公共圏]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최신작 『みんなの民俗学』(2020)에는 버내클러한 공공권이란 용어로 바뀌었다. 저자에게 또 하나의 공공권과 버내클러한 공공권 사이의 개념적 차이가 있는지 질의했고 개념어를 조금 더 면밀히 표현하기 위해 고쳤을 뿐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 번역에서는 최신작에서 사용하는 버내클러한 공공권을 사용했다.

23) \*역주: 이 연구에서 언급된 개념인 공공권이란 일본 학계에서 Öffentlichkeit, public sphere의 번역어로 주로 채택하는 것으로 한국 학계는 주로 공론장(公論場)으로 번역하는 개념으로 이 번역에서는 공론장보다 원문에서 쓰는 공공권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했다.

24) 이러한 ‘시민적 공공권’으로서 ‘커피하우스’‘카페’로부터 신문 저널리즘이 발달했다. 이것을 포함해 ‘커피하우스’‘카페’에 대해 논한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키오 코바야시(小林章夫), 『커피 하우스-18세기 런던, 도시의 생활사(コーヒー・ハウス—18世紀ロンドン、都市の生活史)』(講談社, 二〇〇〇), 우스이 류치로(臼井隆一郎), 『커피가 돌면 세계사가 움직인다-근대시민사회의 검은 액체(コーヒーが廻り世界史が廻る-近代市民社会の黒い液体)』(中央公論社, 二〇〇〇), 타구치다쿠미(田口 卓臣), 『カフェ文化と一八世紀』 『フランス文化事典』(丸善出版, 二〇一二).

다. 모닝구의 장도 ‘타자끼리 만나 커뮤니케이션하는 장’과 다르지 않기에 ‘공공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곳은 같은 공공권이어도 ‘시민적 공공권’과 다른 ‘대 계몽주의적 공공권’, 즉 ‘버내쿨러한 공공권’인 것이다.

‘버내쿨러한 공공권’은 ‘시민적 공공권’보다 가치가 낮지 않다. 사회사상사연구 분야에서는 ‘시민적 공공권’이 남성, 문화자본(식자 능력, 교양 등)이 있는 이들만의 특권적 공간으로 그 이외의 사람은 배제하고 성립한 ‘공공권’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형성해 온 ‘또 하나의 공공권’에 착목하여 그것이 어떠한 성질의 공간이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sup>25)</sup> 이 경우 내가 말한 ‘버내쿨러한 공공권’은 이 ‘또 하나의 공공권’에 해당한다.

사회는 계몽주의적 합리성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님을 민속학은 풍부한 사실로 보여주고 강조해왔다. 우리들은 계몽주의와 대 계몽주의 쌍방(双方)을 고려해가며 사회의 존재 양상을 생각해야 한다. ‘공공권’에도 이러한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시민적 공공권’만이 ‘공공권’이지 않다. ‘버내쿨러한 공공권’역시 사회적 존재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공공권’이다. 본 연구에서 본 모닝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 ◎ 참고문헌

石毛直道 / 케네스·라돌 一九九二 『アジアの市場－歴史と文化と食の旅－』 く 伊 もん 出版。 藤哲司 二〇〇一 『ハノイの路地のエスノグラフィー－関わりながら識る異文化 の生活世界－』 ナカニシヤ出版。

岩本通弥 一九八三 「風呂屋と床屋－失われたコミュニティ空間－」 『歴史公論』 7 (都市の民俗) 。

岩本通弥 一九八五 「他界としての風呂屋－江戸から東京への転換－」 『歴史手帖』 (都市の民俗)。 13-5 (他界としての江戸・東京－東京論その一) 。

岩本通弥 一九八六 「サラリーマンの生活風景」 『都市鼓動 まち』 (日本人の原風景 上 4)、宮田登他編、旺文社。

上野俊哉 二〇〇二 『ディアスポラ理論における歴史の文体－「もう一つの公共圏」 から 「様々なキャンプ」へ－』 『歴史と空間』 (歴史を問う3)、岩波書店。

上野俊哉 / 毛利嘉孝二〇〇〇 『カルチュラル・スタディーズ入門』 筑摩書房。

臼井隆一郎 一九九二 『コーヒーが廻り世界史が廻る－近代市民社会の黒い血液－』 中央公論社。

大久保洋子一九九八 『江戸のファーストフード－町人の食卓、将軍の食卓－』 講談社。

大貫敦子 二〇〇一 「排除された〈私〉の言葉－ドイツ市民社会における公共圏形成 言語とジェンダー－」 『思想』 肥。

25) ‘시민적 공공권’이 가진 한계와 ‘또 하나의 공공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이토 준이치(齊藤純一), 『公共性』(岩波書店, 二〇〇〇)을 참조하라.

- 買意萱 / 石毛直道二〇〇〇 『食をもって天となす1現代中国の食-』 平凡社。  
齊藤純一), 『公共性』 岩波書店, 二〇〇〇。  
神崎宣武一九九九 「喫茶店」 『日本民俗大辞典』 上、吉川弘文館。  
倉石忠彦一九九〇 『都市民俗論序説』 雄山閣出版。  
小林章夫一九八四 『コーヒー・ハウス』 鱈々堂。  
高岡弘幸 / 村上和弘 一九九七 「コンビニの民俗」 『祭りとイベント』 (現代の世相5、小松和彦編)、小学館。  
高桑守史 一九八九 「路地裏のユートピア-橋本五郎「地図にない街」にみる都市幻想1」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24。  
田中恭子一九八四 『シンガポールの奇跡』 中公新書。  
永倉百合子二〇〇二 「飲茶点描」 『アジア遊学』 36、勉誠出版。  
中澤天童二〇〇〇 『摩訶不思議シティ名古屋の本』 PHP研究所。  
永倉百合子 二〇〇二 「飲茶点描」 『アジア遊学』 36、勉誠出版。 田中恭子 一九八四 『シンガポールの奇跡』 中公新書。  
樋口健夫 一九九九 『ベトナムの微笑み-ハノイ暮らしはこんなに面白い-』 平凡社新書。  
前垣和義二〇〇〇 『大阪くいだおれ学』 葉文館出版。  
前川健一 一九八八 『東南アジアの日常茶飯』 弘文堂。  
毛利嘉孝 二〇〇二 「ヴァーチャリティー-オルタナティブな公共圏をつくりだす-」 『現代思想』 30-6。  
森枝卓士一九九七 『図説東南アジアの食』 河出書房新社。  
森栗茂一九九〇 『河原町の民俗地理論』 弘文堂。  
森栗茂一九九四 「試みとしてのローソンの民俗誌」 『京都民俗』 12。  
森栗茂一九九八 『しあわせの都市はありますか-震災神戸と都市民俗学-』 鹿砦社。  
森栗茂一九九九a 「随想長屋の復興」 『神戸新聞』 一九九九年一月二十二日。  
森栗茂一九九九b 「随想アジアタウン」 『神戸新聞』 一九九九年三月九日。  
山下清海一九八七 『東南アジアのチャイナタウン』 古今書院。  
S・アーノウィッツニ〇〇二 「対抗的公共圏としての労働組合」 『現代思想』 30-6。  
ユリゲン・ハーバ-マス 一九九四 『公共性の構造転換-市民社会の一カテゴリー- についての研究-』 (細谷貞雄・山田正行訳)、未来社。